

# 폐결핵에 의한 객혈

이정희/한양대학병원 내과 과장

결핵으로 인한 여러가지 합병증과 후유증의 증상이 우리 신체 여러곳에서 발병하게 된다.

이런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서 그 예방법과 치료법을 사례별로 알아본다(편집자 주)

객혈이란 성대이하부분 즉, 기관지 또는 폐장에서 출혈이 되는 것을 일컫는다. 객혈은 식도 또는 위장계통에서 나오는 토혈, 코 내부기관에서 출혈하여 나오는 비출혈, 치근 및 인두출혈 등과 구별이 어려워 혼돈되는 수가 있는데 이럴때는 출혈할 때의 모양 즉, 기침을 하면서 피가 나오느냐, 또는 토하면서 피가 나오느냐에 따라 구별할 수 있고, 또는 객혈이나 비출혈, 입 또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출혈은 피의 색은 선홍색이나 토혈은 암적색을 띠든지 음식물 또는 위 내용물과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객혈의 원인은 대부분 폐결핵이지만 그외 흔한 원인질환은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 폐흡충증(폐디스토마), 폐암, 순환기질환 등이 있으나 드물게 발

생하는 질환까지 합한다면 백가지 이상이 된다. 이러한 많은 객혈 원인질환을 구별하기 위해서 상세한 문진, 진찰 및 이화학, 세균검사, 흉부 X선촬영, 기관지촬영, 흉부전산단층촬영, 폐혈관촬영 등과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검사도 필요하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객혈이 있는 동안 가슴 어느 부분에서 기관지 잡음을 들을 수 있고 출혈이 중지되었을 지라도 자세한 출혈경과를 듣는 것이 진찰조건보다 더 중요한 진단에 도움이 되는 요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객혈은 양이 적든 많은간에 환자가 안정을 취하고 당황하지만 앓는다면 대개는 24시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나, 처음 경험하는 환자들은 불안, 당황하고 객혈을 한 피를 뱉지 못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나 뺄지 못하는 경우, 기도폐쇄, 흡인성폐렴에 걸릴 수 있음은 교육을 시키면 대부분은 잘 하므로 합병증이 없이 지낼 수도 있다.

객혈의 치료의 목적은 첫째, 출혈을 멈추도록 하고, 둘째, 출혈된 피가 기도 내에서 덩어리 져서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고, 셋째, 호흡의 기능은 계속 보존하고 도와 주는데 있다.

객혈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 안정이 가장 중요하며 대개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스스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기침을 심하게 하면 자극을 주어 다시 피가 나오게 되며 피가 기관지나 폐내에 그대로 있게되면 기관지가 막히거나 흡인성폐렴으로 진행하므로 나오는 것이 느껴지면 부드럽게 천천히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안정이 되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한 정도의 안정제 투여가 효과적이나 안정제의 계속적인 투여는 혈압이 하강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기침이 매우 심할 때는 소량의 코데인을 사용하고 만일 출혈부위를 안다면 출혈부위 쪽으로 옆으로 눕으면 훨씬 편하게 된다. 환자 자신이 느끼는 자각증세는 어느 한쪽에 흉통이 있든지 아니면 가래 끓는 듯한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으며 예전에 사친 찍은 곳에서 나쁜 쪽 부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단 확인이 되면 피가 나오는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는 것이 중요하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마다 반대쪽으로 누워서 피 또는 분비물을 체위성

배출시킴으로써 기도폐쇄를 방지해야 한다. 만일 출혈이 심하면 머리를 가슴 보다 낮추어서 즉시, 기관지내용물 흡출, 또는 기관지경을 통해서 흡출시킨다. 때로는 기관절개술이 필요할 경우도 생긴다. 만일 이런 기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는 환자에게 피를 뺏어내지 못하면 피가 기관지 속에 응고되어 질식해서 죽으니 피를 뺏어내도록 설득시키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협조가 된다. 어떤 경우에는 객혈환자에게 안정제 과량투여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기관배출이 필요할 때도 있다. 객혈 후, 호흡이 빨라지는데 만일 호흡곤란이 심하면 산소흡입을 해준다. 수혈은 헤마토크리트 30%이상 유지시킬 정도로 하나 너무 많은 양의 수혈은 혈압을 정상 또는 이상으로 상승시켜서 출혈을 조장시킬 수도 있으므로 수혈은 쇼크 이외에는 객혈이 중지되었을 때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혈압이 아주 낮아져서 쇼크에 가깝게 되면 호흡의 깊이도 알아지니 이 때는 인공호흡 또는 호흡보조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객혈은 소량이고 자연적으로 중지되지만 어떤 경우는 응급수술로서 지혈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응급 개흉술을 필요로 하는 두가지 요인은 계속적인 출혈로 기도유지가 불가능할 때와 충분한 양의 수혈로서도 혈압을 유지 못하는 때이다. 또한 수술의 적용이 안되는 경우나 암 등에 의한 객혈이 있을 때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동맥을 통하여 기관지동맥을 막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 †